

민족고전 《환재집》에 수록된 19세기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자료의 사료적가치

리 경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샤먼〉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 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김일성전집》 제41권 413페이지)

우리 나라 민족고전인 《환재집》은 조선봉건왕조말기의 관료이며 개화사상의 선각자의 한사람인 박규수(1807-1876)의 시문집이다.

박규수는 어릴때부터 할아버지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반침략사상이 강하였으며 부패한 내정의 개혁과 국방강화를 주장하였다.

1848년 문과에 합격하여 참판과 판서, 대제학,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우의정까지 지낸 박규수의 문집인 《환재집》은 11권 5책으로 되어있으며 1권부터 3권까지는 200여수에 달하는 시들이 들어있고 4권부터 11권까지는 여러가지 산문들이 기록되어있다.

《환재집》에 수록된 산문들에는 주로 미제침략선의 침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자료들,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적의견들, 환자법을 비롯한 봉건적착취의 폐단을 논의한 자료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의병장들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감행한 침략책동자료들의 사료적가치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환재집》에는 침략선 《서면》호의 침입과 남연군묘도굴사건, 대규모무력침범사건 등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불법침입하여 살인, 방화, 략탈, 정탐행위를 감행한 죄행을 폭로한 자료가 7건이나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비록 단편적이지만 《서면》호침입 전에 감행된 미제의 책동으로서 1855년에 포경선으로 가장한 미제침략선이 강원도 통천앞바다에 침입한 사건, 1865년과 1866년에 있는 《씨프라이스》호 침입을 비롯한 함선침범사건기록도 있다.

민족고전 《환재집》에 수록된 19세기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자료의 사료적가치는 첫째로, 미제의 침략선 《서면》호의 침입사건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알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19세기 중엽 미제는 더 많은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 미쳐날뛰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드러내놓기 시작하였다.

《환재집》7권 자문편에는 《미국조난민들을 구원하여 호송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1855년과 1865년, 1866년을 전후하여 세차례에 걸쳐 호송하였는바 이는 오랜 일도 아닌것만 큼 그 나라 사람들도 보고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특히 1866년 6월 미국군함 《씨프라이스》호가 평안도 철산부 앞바다에 침입하였다가 표류되었을 때 당시 평안도관찰사로 있던 박규수는 이를 봉건정부에 보고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의복까지 주어 압록강을 거쳐 청나라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서면》호침입 전부터 조선봉건정부를 내탐하기 위한 미국의 정탐행위가 계획

적으로 진행되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씨프라이스》호의 정탐을 통하여 미제는 조선을 개방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할수 있는 약한 고리를 평안도라고 보았다. 이로부터 《서면》호침입로정을 한강이 아니라 대동강으로 정하였다.

1866년(병인) 7월(음력) 미제는 드디어 조선침략의 척후병으로서 침략선 《서면》호를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첫 무장침략을 감행하였다.

대동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만경봉까지 침입한 적들은 배의 정체도 밝히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통상을 요구하러왔다고 표방해나섰다. 이때 평양감영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외국과의 교역은 나라의 법에 금지되어있으므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저들의 행패를 감시하던 평양감영의 한 무관을 억류하는 한편 며칠동안 대동강을 오르내리며 총포를 발사하여 수많은 평양사람들을 살상하였다 .

이에 격분한 수만명의 군사와 인민들은 총과 화살을 쏘고 나무를 실은 배들에 불을 달아 접근시켜서 침략선을 없애버렸다.

《서면》호의 격침은 전적으로 창발적인 전법을 내놓으시고 투쟁의 선두에 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우연선생님과 반침략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당시 평안도관찰사로 있던 박규수는 적들을 물리칠 단호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 되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서면》호를 격침시키는 평양인민들의 투쟁을 직접 목격하고는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군대와 백성들이 한결같이 격분한 마음을 안고 명령이 없이도 모이고 복을 울리지 않아도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서 탄환과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제 한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코 침략자를 쳐없애고말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싸움에 떨쳐나섰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방면에서 방어를 하면서 불배를 적들의 함선이 있는 곳으로 떠내려 보내는 전술을 써서 적들을 씨도 남지 않게 모두 격멸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사들과 백성들모두가 용감성을 발휘하고 정의감에 불탄데서 나온것이지 처음부터 저의 지휘와 절제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환재집》 권6 소차)

민족고전 《환재집》에 수록된 19세기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둘째로, 《서면》호사건을 구실로 하여 감행된 미제의 수차에 걸친 함선침범사건과 남연군묘도굴사건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알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서면》호가 침몰되고 선원전원이 불타죽거나 수장되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인 2명과 청국인 2명이 살아 평양에 억류되어있다는 《4인생존설》을 꾸며내었다. 그리고 1866년 12월 해군제독 슈펠트를 두목으로 하는 침략선을 또다시 황해도 장연현 목동포에 침입시켜 뻔뻔스럽게 그해 가을 평양강에서 불타버린 미국배가 평화적인 상선이며 생존자도 있을것이니 저들에게 넘겨달라는 철면피한 요구를 하면서 조선서해연안에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정탐자료에 기초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렴치한 강도적침략계획을 꾸며냈다.

미제의 계획은 조상을 존대하는 조선사람들의 풍습을 리용하여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해낸 다음 그 유해를 미끼로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는것이였다.

이 침략계획의 실현을 위해 침략선 《웨난도아》호와 《차이나》호를 침입시키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차이나》호보다 앞서 《쉐난도아》호를 들이민 목적은 《서면》호사건에 대한 해명을 구실로 평양부근에까지 기여들어 각종 도발책동을 벌임으로써 조선사람들의 이목을 대동강일대에 집중시켜놓고 남연군묘도굴계획을 손쉽게 달성하자는데 있었다.

1868년 3월에 함장 페비거의 지휘밑에 침략선 《쉐난도아》호는 황해도 풍천부앞바다에 침입하였다. 이때부터 《쉐난도아》호는 황해도와 평안도지방의 연해를 오르내리면서 총포탄을 쏘아대며 대동강으로 침입할 기회만 노렸다.

미제침략자들은 3월 20일 황해도 장연현에 기여들어 주민부락에 불을 지르고 집짐승을 마구 략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형편을 내람하려고 책동하였다.

당시 청천강남쪽의 수군방어사인 리기조가 군교를 파견하여 적들의 범죄행위에 항의하였으나 침략자들은 도리어 총포사격을 가하면서 사태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의 갈수록 오만해지는 날강도행위에 대하여 평안감사로 있던 박규수가 물러갈것을 요구해나섰으나 페비거는 위협적이며 기만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회답편지를 보내어왔다.

페비거는 편지에서 《병인년에 이 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상선 두척중 한척은 풍랑을 만났다가 구원되었으나 한척은 사람도 죽고 배도 없어졌는데 이처럼 판이하게 하나는 구원되고 하나는 피해를 당한 까닭을 알수 없어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견되어왔다.》라고 하면서 《서면》호사건의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우려고 위협공갈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의》와 《화목》을 도모하려 한다고 껀치면서 한편으로는 령해측랑과 정탐행위를 감행하면서 대동강하구에까지 기여들었다.

미제의 파렴치성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침해당할수 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또다시 진지방어전법을 내놓으시고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의 앞장에 서시여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항전에 부딪쳐 《쉐난도아》호의 평양침공기도가 파탄되자 적들은 어리석게도 《서면》호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다시 오게 될것이라고 위협해나서면서 2주일이상이나 조선서해연안을 싸다녔다.

《쉐난도아》호가 총포탄을 쏘아대면서 소동을 피우는것과 같은 시기인 1868년 4월 군함 《차이나》호가 남연군묘도굴을 목적으로 공충도(오늘의 충청북도, 충청남도) 홍주앞바다에 기여들었다.

이때의 형편에 대해 당시 공충도관찰사였던 민치상과 덕산군수였던 리종신은 의정부에 《미국배에서 내린 수백명이나 되는 놈들이 덕산군의 관청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는 곧장 군의 북쪽에 있는 가야산의 남연군묘도굴에 달라붙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가야동인민들의 격렬한 반격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덤 한쪽 모퉁이만을 파헤쳐놓은채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묘도굴이 실패하자 미제는 다시 영종도부근에 침입하여 불법강점하려고 시도하다가 그것마저 수포로 돌아가 뺄소니치게 되었으며 《차이나》호에 마지막기대를 걸면서 20여일간이나 조선서해연안을 돌아치던 《쉐난도아》호도 제 소굴로 달아났다.

민족고전 《환재집》에 수록된 19세기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자료의 사료적가치는 셋째로, 미국함대의 대규모무력침공사건(신미양요)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알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거듭되는 군사적침공을 통해서도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1871년에 대규모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기어이 굴복시키려고 미쳐달뛰었다.

무력침공준비를 갖춘 미제는 또다시 1871년 1월 청나라정부를 통해 조선봉건왕조정부에 《서면》호사건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를 구실로 일방적인 조약체결을 강요하는 협박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왔다.

조선봉건왕조에서는 1871년 2월 21일 파렴치한 협박문에 대하여 《서면》호사건은 전적으로 미국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다는것, 우리 나라는 통상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것, 미국이 또다시 침략해오면 격멸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보냈다.

악에 받친 미제침략자들은 4월초 5척의 군함에 천수백여명의 침략무리를 싣고 경기도 부평앞바다에 기여들어 담판을 요구하면서 불법령해침범을 기도하였다. 강화해협외의 군사요충지인 손돌목에 2척의 군함을 들이밀어 포대를 점령하려던 적들은 우리 군사들이 적함을 보고 포를 쏘자 기다렸다는듯이 함포사격을 미친듯이 가해왔다.

적의 포탄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우리 군사들은 명중사격을 가하여 적함을 격상시켰고 손돌목전투는 도발자들의 참패로 끝났다.

그러자 미제는 편지를 보내오면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왔다, 의심하지 말라, 절대로 해칠 생각은 없다, 놀라지 말라, 례의로써 접대하기 바란다고 철면피하게 책동하면서 강제로 조약을 맺으려고 획책하였다.

조선봉건정부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침략자들은 손돌목에서의 패배를 구실로 초지진과 광성진 등 여러 포대를 포위하고 악착스러운 공격을 들이대었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우리 군사들의 반격에 의해 침략자들은 또다시 심대한 타격을 면할수 없었으며 5월 중순에 우리 나라 연해에서 완전히 쫓겨나고말았다.

이상의 자료는 미제야말로 백수십여년전부터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침략할 기회만을 노리며 갖은 만행을 다해온 백년숙적이며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썩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민족고전 《환재집》은 필자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부터 김응우선생님의 지도밑에 침략선 《서면》호를 대동강에 수장시킨 평양인민들의 투쟁내용을 비롯한 반침략자료들이 날자별로 상세히 서술되지 못하고 제한된 자료들만 수록되어있는 부족점도 있으나 19세기 중엽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와 당시 사회형편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